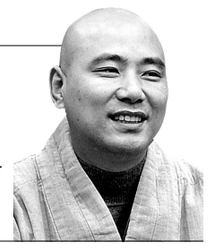
| 불자 세상보기 |

유명인들의 한 마디



선업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가수 김장훈 씨가 보여준
노 대통령 추모제서 막말
영향력 있는 공인의 실수

서구서도 공인 막말 문제
1년간 막말 인사 시상하는
'발 속의 입' 이란 賞 있어

"사실에 맞는 말하라"는
부처님 가르침 상기하길

영어인 리더십을 한글로 옮길 때 적절한 말이 무엇인지 고민한 적이 있다. 어느 날 "영향력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말을 듣고 손뼉을 쳤다. 납득이 가는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 중 꽤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오르기를 희망하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사람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을 띠는 자리에 있으면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공인이라고 칭하는데, 특히나 이런 공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가히 폭발적인 수준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사실 좋은 행동이나 좋은 말 한마디를 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은 별로 표가 나지 않지만 나쁜 행동 거친 말 한마디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일은 너무나도 많다.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가수 김장훈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故 노무현 대통령 추모 무대에서 무대에 올라 경찰들을 욕해 문제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도 대통령의 신분으로 기자를 비롯한 본인의 취향에 거슬리는 이들에게 막말대잔치를 벌여 많은 이들을 당혹하게 만든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로 계속 시끄럽다.

이런 점으로 보아, 공인이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좀 더 생각을 한 연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공인들의 정제되지 않은 언어사용의 문제점은 서구에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공인의 지위 망각형 언어사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영국에 본부를 둔 '쉬운 말 쓰기 운동(Plain English Campaign)' 본부에서는 세계 유명 정치인과 사업가 중 한 해 동안 '말실수'와 '이해 안 되는 발언' 등을 많이 한 이에게 주는 불명예스러운 상인 'Foot in Mouth Award'를 매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입 속의 발'이라는 상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입에 걸레를 문' 언어 사용은 제발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도 교단의 영향력 있는 장로의 언사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상황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단호하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80살이나 90살이나 100살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가 시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유익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법에 어긋나게 말하고 율에 저촉되는 말을 하며, 그리고 시의적절하지 않고 이유가 분명하지 못하고 (특정한 주제에) 제한되어 있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고 담아둘 만하지 못한 말을 하는 자라면, 그는 단지 '어리석은 장로'라는 이름을 얻을 뿐이다."〈우루웰라 경2(A4:22)〉

그리고 "올바른 때에 말하고 사실에 맞는 말을 하며, 유용한 말을 하고 가르침(法)에 합당한 말을 하며, 계율(律)에 맞는 말을 하되 가치 있는 말을 적당한 때에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의미 있도록"하고 "부드럽고 귀에 듣기 좋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와 닿고, 점잖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 받고, 많은 사람에게 유쾌한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러한 말을 하라"고 신신 당부를 하고 있다.

요사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거나 공공장소나 방송에서 쏟아낸 막말로 대중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연예인, 정치인, 방송인들의 사건 사고가 너무 잦다. 매체의 실시간화에 힘입어 공인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된 지금, 유명인들이 '리더'의 자리에 합당한 언행과 행실을 보여주는 '모델링'의 존재로 이 사회에서 기능해 주었으면 좋겠다.

社說

종교인 과세, 이젠 실행하자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재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과세 2년 유예를 포함, 교회나 종교단체에 대한 탈세 제보 시 국세청 대신 소속 종단·종파에 세무조사를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일단 진화에 나섰다. 불교계와 가톨릭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본지가 취재한 조계종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문제는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들이다. 이들은 "각 종단마다 가진 고유한 영역과 환경을 제대로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과세 기준을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나오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가 '세금'임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공평 과세는 조세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적혀 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종교가 조세 정책에서 혜택을 받는 이유가 지금은 불분명하다.

참고로 김진표 위원장은 수원 모 교회 장로이자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장을 맡고 있다. 시대에 역행하는 그의 발언이 어긋한 신심(信心)서 비롯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

불교계, 적극적인 남북대화 나서야

건축계에는 한가지 원칙이 있다. 바로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더 단단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럽게 짓는 것이다.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유연함이 건물을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비밀이 이 원칙에 숨겨져 있다.

병서인 〈삼략〉에도 이런 대목이 있다. '부드러움은 능히 굳셈을 제어하고, 약한 것은 능히 강함을 제어한다'는 말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에 있어서도 이처럼 부드러움은 중요하다. 특히 나라의 처세는 더욱 그러하다.

북핵 위기 속에 남북 종교인들이 6월 17~20일 평양에서 접촉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북 종교인들의 만남은 2015년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종교인대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니 세간의 이목이 몰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북한 인도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및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의 대북 접촉을 잇따라 승인하며 민간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를 불러 모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 내 대북교류 및 인도지원 단체인 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나누며하나되기 등도 정부 방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종교인들의 남북교류는 앞서 밝힌 우리나라에 일종의 '유연함'을 더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탈출구 없는 강대강의 끝이 결국 파국일 뿐이란 점을 모든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일촉즉발 국면에서도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서희의 지혜가 바로 유연함에 있다. 법정 스님은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드는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고 말했다. 북핵 위기 속에서 불교계도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민간교류의 물꼬를 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 속에 녹아 있다.



특별기고

직선제, 태고종 살릴 유일한 길

대은 스님 태고종 종회 총무분과위원장

현행 태고종 총무원장의 선거제도는 종도의 대표자인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제도로써 한계지점에 봉착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금권선거와 과열, 혼탁선거, 계파 등 정치세력에 의한 담합 내지 야합을 들 수 있다.

그 대안으로 평등한 참종권 확보를 통한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태고종의 직선제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 종도가 직선제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종도의 화합과 종무에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태고종은 지금까지 몇몇 지도자의 능력으로 이끌어 왔다. 태고종은 사설사암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총무원의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자 하는 우리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서원을 발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종단의 분담금, 의무금 문제만 하더라도 많은 종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태고종 종도들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불법유시로 사찰에서 나온 분규 1세대의 경우 단합력이라도 있었지만 2세대, 3세대를 거듭하며 애종심이 결여된 상태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지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태고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데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직선제로 수용해 민주화가 크게 진작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동안의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태고종도 직선제를 도입하면 분명한 장점이 있다.

가장 먼저 대중공의의 현대적 실현이 가능하단 점이다. 종도의 참종권 확대는 시대적 과제다. 종도들이 종단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종단의 능력은 배가 되고,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는 종단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한 대표자 선출이 가능하기에 종단 대표자의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강화된 대표성을 기반으로 각종 종책 구현에 있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계파정치에 의해 종도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종도들의 입장과 어긋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종단 대표자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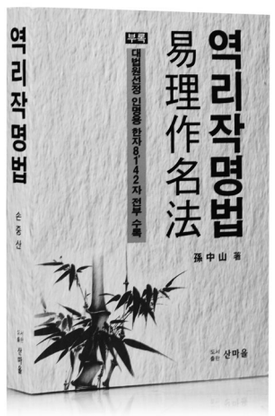
종단 내에서도 수행경력이 낮은 이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입산 3년부터 5년까지 된 종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종단이 화합하고 다시 전통종단의 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종단의 힘으로 직선제 선거를 원만하게 이루어 낼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국가가 각 선거구를 만들어 선거를 치르듯 종단도 지역별 선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해결될 것이다. 총무원장 선거 뿐만 아니라 향후 중앙종회의원, 지방종무원장, 지방중앙종회의원선거 등도 직선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사회에서는 태고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슬아슬하다고 안타깝다며 말하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때 태고종 종도들이 심기일전해 지혜를 모은다면 다시금 전통종단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해결 방안에 바로 '직선제'가 있다. 그것이 지금 어려움에 직면한 태고종을 살릴 유일한 대안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易理作名法
(역리작명법)
(당신도 작명대가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일반인들은 작명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함부로 작명하고 개명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옛말에 자식을 낳으면 먼저 그 이름 바르게 지어주어야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타고난 사주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 본서에는 이름에 쓰면 절대로 안 되는 불용문자(不用文字)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작명과 개명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이 선정한 인명용한자(人名用漢字) 8,142자 전부를 수록하였다.

易理作名法 (503쪽) 著者 : 孫中山 會長 (전, 대구미래대학 강사)
서점판매가 : 40,000원 (스님 판매특가 : 34,000원)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30-002326-01-014 (예금주 : 손상용)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10-9391-5699

국내외 한국불교대학
지원 모집

회주 無一 우학 큰스님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안내
1 3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을 때 인정하고 공부 지원함.
2 한국불교대학 정규시간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제공함.
3 2년 과정을 공부 마치면 2년 전법사증 수여.
4 전법사증을 받으시면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동문 신도로 인정함.
5 국내외 도량의 통학 1시간 이내는 지원 설립 할 수 없음.
6 1년에 한 번 정도 감포도량 무일선원 & 세계명상센터에서 회주 無一 우학 큰스님과 합동 명상 힐링캠프 개최.
7 교재를 구입한 신도만 정식 동문으로, 꼭 교재가 있어야 공부가 가능함.
8 CD 또는 TAPE의 발송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무단 복재를 절대 금지, 2개월 마다 모아서 반납해야함.
9 공부할 장소는 지원의 대표(지원장)가 알아서 하고, 장소 구입 및 자체 회비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재정 권한은 지원장에게 있으며, 한국불교대학 본부는 간섭하지 않음.
10 20명 이상이 되면 분원으로 승격하고, 큰 공간이 만들어지면 도량으로 승격함.

• 문의 : 053-474-8228 (담당 : 대구큰절 종무팀장 수향)

※ 감포도량 무일선원 & 세계명상센터 명상힐링학교 모집

사) 해동불교 조계종 총무원
종도 모집

총무원장 : 혜암

불조의 혜명을 함께
갈구 하면서, 제방의 스님들과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하실 대덕스님을 모십니다

010-8224-1688

전북 익산시 왕궁면 시대길 73-26 영천사
천년고찰 암반수 영험도량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